

POLICY TREND

정책동향

중기청 · 한국PL협회, 제조물책임 순회설명회

제조물책임(PL)순회설명회가 지난 4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열렸다.

중소기업청과 한국PL협회는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를 줄이고 제품안전 기술력 향상을 위해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지역별로 '제조물책임 순회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2004년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대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해당 지역별로 지방중소기업청과 한국PL협회가 주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공동 참여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접수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의 소비자 안전 강화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과 PL법 동향 등 국내외 PL관련 동향,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방향등이 논의된다.



한은, 무역금융 한도 4천억원 확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 한도가 4천억원 확대되어 중소기업체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규모는 1년전 6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총액대출한도 9조6천억원 중 무역금융과 지방중소기업 지원한도를 각각 4천억원씩 증액, 4월부터 시행중이다.

또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되어왔던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시 적발된 총액한도대출관련 주요 위규 및 오류 사례를 각 금융기관에 배포함과 아울러 규정관련 주요 업무질의 및 답변내용을 망라한 통첩집을 제작·배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규정위반 및 중소기업대출실적 보고 오류 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대기업 전환, 폐업 등 총액한도대출 운용과 관련된 기업정보를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 확립하는 한편, 위규·오류사례가 적발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도 배정시 더 많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기불황 속에서 높은 내수의존도로 고전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은 지역본부 배정한도를 4천억원 증액하고 동시에 본부 배정한도를 감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증액분을 포함해 지역본부 배정한도는 1년간 3조6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산자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사업단' 발족

차세대전지, 반도체 등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5개분야 차세대 성장동력을 이끌어갈 '사업단' 이 공식 출범했다. 사업단은 앞으로 기술개발뿐 아니라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제협력,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성장동력 창출을 주도하게 된다.

이와함께 운영위원회는 해당산업을 대표할 산·학·연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돼 사업단장과 함께 사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단장은 한정된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산학연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우선 사업기획 및 사업단의 최고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시 지난 사업단 선정 과정에서 탈락된 아이디어와 인력, 기업 등이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올해 지원될 기술개발과



기반조성 과제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인력양성 관련 지원대상 과제인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개발 인력양성 △차세대 지능형로봇 인력양성 △차세대반도체(SoC) 설계인력양성)는 이달중 사업단에서 주관기관을 공모해 즉시 본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개성공단 전력공급방식이 남한에서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송전방식으로 확정되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전의 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 개 입주하는 시범단지에는 22.9kV 배전선로를 이용해 전기를 공급하게 되며, 이 배전선로 구축사업은 이르면 오는 6월께 착공, 올 연말 이전까지 완료된다. 또 개성공단의 입주가 완료되는 2006년 이전까지 154kV 송전선로를 건설, 전력을 공급할 방침이다.

기표원, 전기기기분야 시험평가 기술교육 실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총 5회에 걸쳐 전기기기분야 현장기술자를 대상으로 국제규격에 따른 시험평가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07년까지 총 25회에 걸쳐 각 전기기기 분야별로 나누어, 개최될 예정이며 국제규격해설 및 현장실습과 주요 수출국의 인증제도설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이번 교육을 위해 전문교육장을 설치하고 국제규격 관련 전문가가 직접 첨단시험연구설비를 이용, 국제표준규격 및 부합화된 KS규격 해설 등 기본적인론과 현장실습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기표원은 생산현장의 전문기술인력이 국제화 시대에 요구하는 제품의 시험과 분석능력을 제고하게 됨으로써 생산제품의 품질향상과 국제표준 규격 요건에 맞는 제품개발 및 생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올해 실시될 교육 계획이다.

- 제1회 (4월22일~4월23일) : 램프구동장치 분야
- 제2회 (6월22일~6월23일) : 회전기기분야
- 제3회 (8월26일~8월27일) : 차단기분야
- 제4회 (10월28일~10월29일) : UPS분야
- 제5회 (12월16일~12월17일) : 전기자기적합성분야



중진공, 해외 기술 인력도입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국산업기술재단과 공동으로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2004년 중소기업 해외 고급기술인력도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해외인력 유치에 희망하지만 해외인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 헤드헌터사와의 개별상담이 있었다.

이번 설명회는 전문지식을 갖춘 해외고급인력을 유치해 기술력 향상은 물론 기술인력난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